“사경 공덕 담은 탑 보며 신심 증장을”

천태종 삼룡사 6월 26일 ‘사경탑 및 사경봉정법회’ 봉행

코로나19 기간 신도 사경 수행
2000여 명 동참, 3000권 모아
7층 높이 사경탑으로 문화불사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태종 삼룡사에는 독특한 탑이 있다. 탑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사경탑(寫經塔)’이다. 삼룡사 신도 2000여 명이 1년간 한글자씩 써내려간 사경집 3000권으로 이뤄진 국내 유일의 유리사경탑이다.

서울 삼룡사는 6월 26일 ‘지구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사경탑 및 사경 봉정 법회’를 열고 사경탑을 공개했다.

유리 사경탑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독특하다. 2021년 2월 삼룡사로 부임한 무원 스님은 코로나로 법회를 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명락사에서 다문화가정 포교 일환으로 사경 교육을 진행했던 스님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찰에 나오지 못하는 신도들에게 사경 수행으로 정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스님은 신도들 각 가정에 7권짜리 〈법화경〉과 〈육방예경(六方禮經)〉 〈무량의경(無量義經)〉 등의 사경집을 보냈다.

무원 스님은 “사찰에 나오지 못한 신도들이 우울증을 호소했다. 이런 신도들의 심리를 사찰에서 보듬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가정으로 사찰에서 경전을 보내주니 고맙다는 말이 많았다. 그런 고마운 마음을 사경할 때 개인 뿐만 아니라 국난극복을 위한 염원으로 담아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삼룡사 신도들은 사경으로 코로나 기간을 보냈다. 사경을 마친 신도들이 삼룡사로 다쓴 사경집을 보내왔다. 올해 초부터 사경을 마친 사경집들이 삼룡사에는 쌓여갔다.

무원 스님은 “2000여명이 1년간 수행한 공덕이 쌓인 것”이라며 “시대적 애환이 녹아 있는 사경집을 보니 이 원력을 문화불사로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그동안 사경집 봉안은 석탑과 목탑, 목불 등에 이뤄졌다. 내부를 볼 수 없었다. 무원 스님은 “다른 이들의 신심을 보는 것 만으로도 또 다른 감동, 신심 진작이 된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신심마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이러한 불사를 통해 좀 더 많은 이들의 신심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이자 삼룡사 주지인 무원 스님이 사경탑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유리 사경탑은 단청 전문가인 이경열 씨가 맡았으며, 사경집 규모에 맞는 7층으로 구성됐다. 사경집 3000권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탑 골조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됐고, 각 면은 투명유리로 둘러싸 내부가 보이도록 했다. 각 탑의 구성은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현대적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이기도 한 무원 스님은 “종단 소의경전인 〈법화경〉을 중심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사경 수행도 적극 장려해갈 예정”이라며 “사찰에서의 염불정진과 함께 가정에서의 경전 사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찰과 가정의 수행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계속해서 신도들의 신심을 드러내고 서로 찬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신도들이 사경탑을 보며 코로나 기간 신심을 떠올리고 더욱 마음을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3기 모집



조계종 포교원은 7월 8일까지 불교크리에이터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웹툰과 블로그, 영상, 틱톡, 유튜브 쇼츠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로 불교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불교크리에이터 3기에 도전하려면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창작역량을 확인가능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팀당 100만원의 콘텐츠 제작과 홍보 창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기 불교크리에이터로 위촉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본인 또는 팀 SNS 계정에 매달 1회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해야 한다. 영상과 폰트, 사운드 등 콘텐츠 저작권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다고 포교원은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구 불광사 지역미래불자 장학금 전달

대구 불광사(주지 지안)가 지역 출신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6월 28일 교내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회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불자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대구 불광사는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억 원을 약정했다.〈사진〉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오늘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역 사찰과 동국인이 인연을 맺는 중요한 행사”라며 “1000만원 장학기금 이외에도 1억 원 장학금을 약정했다. 후원해준 신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예비 포교사들의 군포교 열정 ‘눈길’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6월 26일 25사단 등서 현장교육

군부대 현장 견학하고
포교원력 새롭게 세워

제27회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서 1차로 합격한 예비포교사들이 일선 군 법당에서 군포교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군법회 진행 현장교육을 받고 불법홍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연수2팀 20여 명은 동부총괄팀장 윤석봉 포교사와 동부군5팀장 김순자 포교사 안내에 따라 6월 26일 파주 육군 25사단 국사봉 대대 보리수법당의 일요법회에서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동부 군5팀 포교사들의 법회 진행을 참관했다.

군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5월부터 군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장병들이 일요일을 맞아 휴대폰 보기를 멈추고 불교 신행활동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법회 전날은 한국전쟁 추모일로 군부대에서는 훈련이 진행됐다. 이에 포교사들은 장병들이 좋아하는 청량음료와 피자 같은 간식을 준비해 제공했다.

파주 육군 25사단의 경우 조계종 제3대, 4대 종정을 역임한 고암 스님 생가터가 있는 곳이다. 이에 예비포교사들은 법회 참관과 함께 2021년 4월 문도회가 조성한 용성고암부도탑 및 평화공원 참배와 부도탑비 탑돌이도 진행했다.

또 예비 포교사들은 육군 25사단 군법당 호국비룡사도 방문해 불자인 사단장의 환영을 받고 주지 금조 스님 법문을 듣고 참관 소감도 나눴다.

호국 비룡사 주지 금조 스님은 이들에게 “불교대학을 이수하고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포교사가 되면 어린이 청소년 교정시설과 군법회 등에서 직접 포교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군종교구에서는 출가자 감소 등으로 군승과 군종병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포교 활동에 힘껏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여러분이 사단 법당과 대대급 법당을 보셨듯이 현실적으로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군포교에 앞장서 불교 미래를 밝히는데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비 포교사들이 군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포교사들은 군포교 현장교육을 마친 뒤 “군 장병들에게 필요한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4월 치러진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와 교육, 면접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단은 총 13개 군팀 약120여명의 일반포교사들이 서부전선(경기도북부지역) 대대급부대의 법당에서 군종교구각 군단, 사단 법당의 지도를 받아 일요일 군 법회활동과 민간성직자활동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의왕 청계사 난치병환아 돕기 나서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와 한국불자가수협회(회장 이창환)는 6월 11~12, 18~19일 등 총 4회에 걸쳐 ‘2022 청계사 난치병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청계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여명의 불자가수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청계사 신도들을 비롯한 지역불자들은 음악회 참여와 함께 모금 캠페인 동참으로 사회적 실천에 나섰다. 불자가수협회는 이날 음악회 수익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사단법인 청소년마이트리(이사장 성행)에 전달했다. 성행 스님은 “우리 주위에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적지 않다”며 “보현행원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동행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